



2017년 유럽혁신지수 분석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7)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내 용

1. 개요
2. 유럽 국가의 혁신성과 분석
3. 비유럽권 국가의 혁신수준 분석
4. EU와 한·미·일·중 혁신수준 단기 전망
5. 정리 및 시사점

작 성

안지혜 KISTEP 혁신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
| jihye@kistep.re.kr | 02-589-5240

1. 개요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업산업총국에서는 「리스본 전략」과 「Europe 2020」 실현의 일환으로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EIS)」를 매년 발표*

* 2010년~2015년에는 IUS(Innovation Union Scoreboard)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016년부터 EIS로 변경

- 동 보고서는 2001년부터 혁신에 대한 EU 회원국 간 상대적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7년 보고서는 16회째 평가결과를 수록하고 있음
- 올해 평가는 정책 우선순위 변화를 반영하고, 지표 품질과 시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는 혁신현상(예 : 디지털화, 기업가 정신 등) 측정에 주안점을 둠

※ 평가모형 주요 개선사항 : 투자, 혁신활동, 파급효과 부문에서 혁신여건을 구분하여 독립 부문 신설, 기업 운영 환경 측정 상세화를 위한 신규 부문 추가(혁신여건 부문의 혁신친화적 환경 항목 신설), 경제적 효과 항목 측정 상세화를 위한 2개 항목 분할(고용 파급효과, 매출파급효과)임

- 2017년 보고서는 최근(2009년~2016년) 혁신성장 추이와 단기 미래 전망, EU 회원국 간 비교, 유럽권 비교, 비유럽권 세계 주요국 비교·분석 결과를 입체적으로 제공

- 종합혁신지수 산출 : 유럽지역 총 36개국* 혁신활동을 4개 부문, 10개 항목, 27개 지표로 평가
- * EU 회원국 28개국, 유럽 8개국(세르비아, 터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마케도니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 벤치마킹 자료 도출 : 27개 지표 중 비유럽권 주요국 10개국 데이터가 존재하는 16개 지표를 활용하여,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 대비 주요국 혁신수준을 비교·분석



주) ■ : 주요 개선사항이 반영된 부문, 항목

자료) European Union,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7」, 2017.6

[그림 1] EIS(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평가체계(부문, 항목) 변화

- 이번 호에서는 유럽 국가의 혁신성과(혁신지수, 상대적 혁신수준 분석 포함), 한국을 포함한 비유럽권 주요국의 혁신성과(상대적 혁신수준 분석)를 중심으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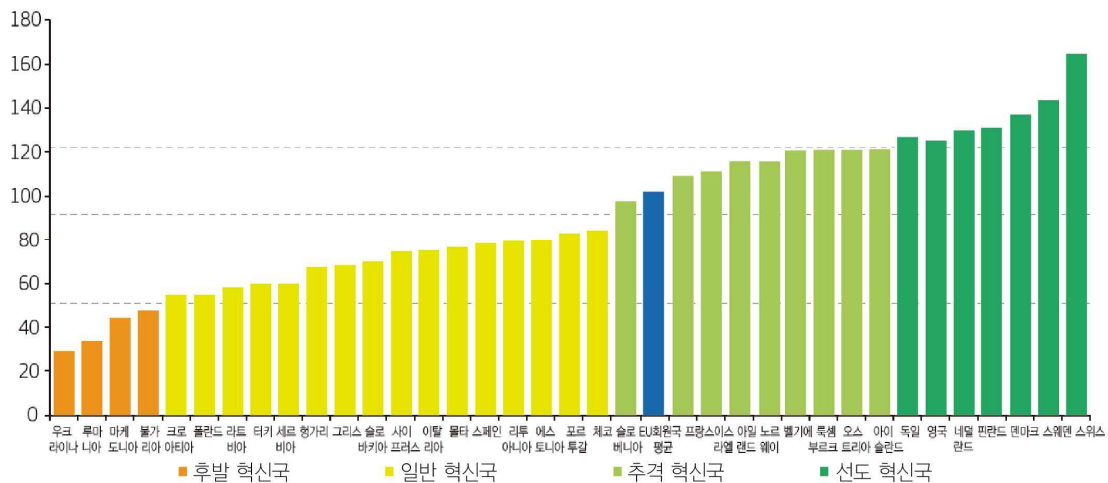
2. 유럽 국가의 혁신성과 분석

2016 종합혁신지수(Summary Innovation Index)

유럽 36개국 중 스위스*는 혁신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0.812점, 1위)

* 유럽연합(EU) 28개국 중에서는 스웨덴이 1위임

- 이어, 스웨덴(0.708점, 2위), 덴마크(0.675점, 3위), 핀란드(0.646점, 4위), 네덜란드(0.639점, 5위) 순으로 최상위권 형성
- 반면, 우크라이나(0.142점, 36위), 루마니아(0.167점, 35위), 마케도니아(0.218점, 34위), 불가리아(0.234점, 33위)는 최하위권으로 혁신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자료) European Union,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7」, 2017.6

[그림 2] 2016년 유럽권 EIS 종합혁신지수(SII) (EIS 2017 평가결과)

영국, 노르웨이 외에는 4대 국가 그룹 간 변동이 없으며, 그룹 내 국가별 순위 변화만 소폭 발생

- 영국은 전년대비 4단계 순위가 상승(10위→6위, ↑4)하였고, 추격 혁신국 그룹에서 선도 혁신국 그룹으로 상향 조정됨
- 노르웨이는 전년대비 3단계 순위가 상승(15위→12위, ↑3)하였고, 일반 혁신국 그룹에서 추격 혁신국 그룹으로 상향 조정됨
- 일반 혁신국 그룹 중 리투아니아(26위→20위, ↑6), 스페인(23위→21위, ↑2) 등 7개국은 순위가 상승, 에스토니아(17위→19위, ↓2), 몰타(20위→22위, ↓2) 등 8개국은 순위가 하락하는 등 그룹 내에서만 순위변동이 소폭 발생
- 후발 혁신국 그룹은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총 4개국으로 전년도에 이어 최하위권 유지



[참고] 국가 그룹 분류

- EU 28개 회원국 평균값과 유럽 각 국가의 종합혁신지수(SII)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4개 국가 그룹으로 분류

선도 혁신국 (Innovation leaders)	혁신지수가 EU 회원국 평균의 120% 이상인 국가	일반 혁신국 (Moderate Innovators)	혁신지수가 EU 회원국 평균의 50% 이상 90%미만인 국가
추격 혁신국 (Strong Innovators)	혁신지수가 EU 회원국 평균의 90% 이상 120% 미만인 국가	후발 혁신국 (Modest Innovators)	혁신지수가 EU 회원국 평균의 50% 미만인 국가

자료) European Union,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7」, 2017.6

[표 1] 2016년 유럽 국가의 종합혁신지수(SII) 및 순위 (EIS 2017 평가결과)

순위	국가명	지수	EU회원국 여부	전년대비 순위변동	순위	국가명	지수	EU회원국 여부	전년대비 순위변동
1	스위스	0.812		-	19	에스토니아	0.393	O	↓2
2	스웨덴	0.708	O	-	20	리투아니아	0.391	O	↑6
3	덴마크	0.675	O	-	21	스페인	0.386	O	↑2
4	핀란드	0.646	O	-	22	몰타	0.378	O	↓2
5	네덜란드	0.639	O	-	23	이탈리아	0.371	O	↓2
6	영국	0.618	O	↑4	24	사이프러스	0.369	O	↓2
7	독일	0.609	O	↓1	25	슬로바키아	0.345	O	↓1
8	아이슬란드	0.600		-	26	그리스	0.337	O	↑1
9	오스트리아	0.599	O	↑2	27	헝가리	0.332	O	↓2
10	룩셈부르크	0.599	O	↓3	28	세르비아	0.317		-
11	벨기에	0.597	O	↓2	29	터키	0.294		↑1
12	노르웨이	0.571		↑3	30	라트비아	0.287	O	↓1
13	아일랜드	0.571	O	-	31	폴란드	0.270	O	↑1
14	이스라엘	0.548		↓2	32	크로아티아	0.270	O	↓1
15	프랑스	0.539	O	↓1	33	불가리아	0.234	O	-
유럽연합 회원국 평균		0.503			34	마케도니아	0.218		-
16	슬로베니아	0.482	O	-	35	루마니아	0.167	O	-
17	체코	0.416	O	↑1	36	우크라이나	0.142		-
18	포르투갈	0.409	O	↑1					

주) 올해 보고서는 과거 지수를 재산출하였으며, 재산출된 지수의 순위가 "전년대비 순위변동" 분석 기준임

자료) European Union,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7」, 2017.6

◆ 혁신수준의 변화(Performance changes)

● EU 회원국은 2010년~2016년 사이 약 2%p 정도 혁신수준이 향상됨

※ 2017년 보고서는 '2010년 EU 회원국 평균'을 보고서 전반의 공통 비교 기준으로 정하고, 2010~2015년 기간의 지수를 비율척도(상대적 수준)로 환산한 값으로 추이 분석을 수행(또한, 올해 보고서는 평가모형을 개선하였기 때문에, 전년도 보고서 및 통계브리프 수치와 비교·분석에 주의를 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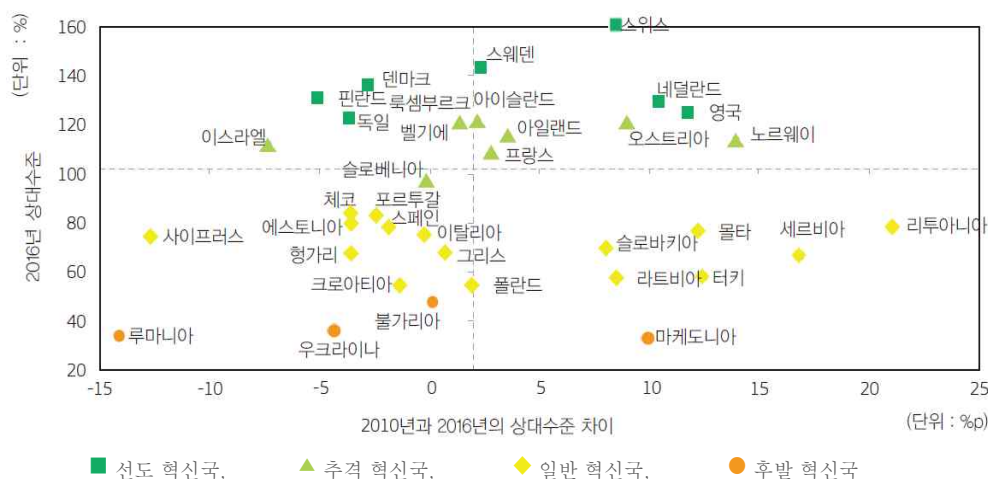
- 유럽연합 28개국 중 15개국은 2010년~2016년 사이 혁신수준이 향상되었으며, 13개국은 2010년~2016년 사이 혁신수준이 하락하였음
- 유럽 36개국 중 21개국이 2010년 보다 2016년에 혁신수준이 향상되었으며, 15개국은 하락하였음

● 전반적으로 혁신후발국과 일반혁신국 국가들의 혁신수준 향상 폭이 크며, 최근 6년간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

- 특히, 리투아니아(21%p), 세르비아(17%p), 노르웨이(15%p), 터키(13%p), 몰타(12%p), 영국(12%p), 네덜란드(10%p), 마케도니아(10%p) 등 12개국 혁신수준은 최근 6년(2010~2016)간 5%p 이상 증가
- 반면, 루마니아(-14%p), 사이프러스(-13%p), 이스라엘(-8%p), 핀란드(-5%p) 4개국 상대수준은 최근 6년(2010~2016)간 5%p 이상 감소

● 하위권 국가들의 혁신수준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합혁신지수별 4개 국가 그룹의 변동은 크지 않아, 국가 그룹 간 혁신 격차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

-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할 때, 영국, 노르웨이 외에는 그룹 간 국가 변동이 없음



주) 각 년도 '상대수준' 값은 기준값(2010년 EU 회원국 평균)이 100일 때의 상대적 수준을 비율척도로 환산한 값임
자료) European Union,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7', 2017.6

[그림 3] 유럽 국가의 혁신수준 변화(2010년, 2016년 비교)

3. 비유럽권 국가의 혁신수준 분석

● 비유럽권 10개국* 중 한국의 혁신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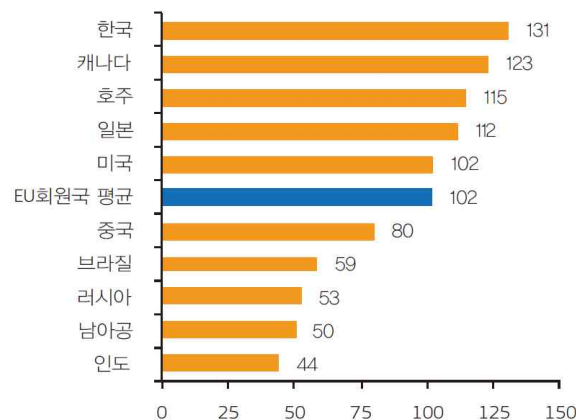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남아공, 러시아, 브라질, 인도, 캐나다, 호주

※ 비유럽권 10개국 비교는 데이터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총 27개 지표 중 16개 지표에 한정하여 분석결과를 수록하고 있음

- 한국(131%)은 2016년 EU 회원국 평균(102%)보다 약 29%p 정도 우수한 수준을 나타냄

※ 2016년 EU 회원국 평균보다 일본은 약 10%p 우수, 미국 약 1%p 우수, 중국 약 22%p 미흡

(단위 : %)



자료) European Union,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7」, 2017.6

[그림 4] 2016년 비유럽권 국가의 혁신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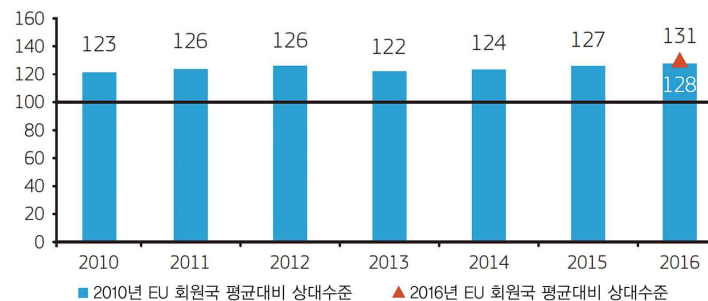
● 또한, 한국은 2010년~2016년 사이 EU 회원국 평균(100%) 보다 줄곧 혁신수준이 높았으며, 선도혁신국 정도* 수준을 가진 국가인 것으로 분석

* 선도혁신국 그룹의 정의 : 혁신지수가 EU 회원국 평균의 120% 이상인 국가

- 2010년~2016년 사이 한국은 2010년 EU 회원국 평균과 격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2010년~2016년 사이 한국의 종합 혁신수준은 약 8%p 가량 향상됨

(단위 : %)



주) 각 년도 "상대수준" 값은 기준값(2010년 EU 회원국 평균)이 100일 때의 상대적 수준을 비율척도로 환산한 값임

자료) European Union,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7」, 2017.6

[그림 5] 2010년 EU 회원국 평균 대비 한국 혁신수준 추이(2010년~2016년)



〔표 2〕 EU(회원국 평균) 대비 한국의 혁신수준(2010년, 2016년)

혁신수준 비교	지 표	한국의 혁신수준		혁신수준 변화 (C-B)
		2010년 (B)	2016년 (C)	
EU 평균 대비 우위	상표권	284	277	-7%p(↓)
	민간분야 R&D 투자	213	242	29%p(↑)
	디자인권	220	223	3%p(↑)
	PCT 특허 출원	132	168	36%p(↑)
	고등교육을 받은 25세~64세 인구	144	141	-3%p(↓)
	공공-민간 공동 논문	144	140	-4%p(↓)
	공공분야 R&D 투자	114	127	12%p(↑)
	중간 및 첨단기술 제품 수출	121	122	0.2%p(↑)
	공공 민간 R&D 공동 투자	108	117	9%p(↑)
	국제 과학 공동 논문	104	106	2%p(↑)
	지식집약형 서비스 수출	97	103	6%p(↑)
EU 평균 대비 열위	제품 또는 공정 혁신을 갖춘 중소기업	103	96	-7%p(↓)
	마케팅 또는 조직 혁신을 갖춘 중소기업	40	88	48%p(↑)
	신규 박사학위자	69	87	19%p(↑)
	상위 10% 피인용 논문	63	62	-1%p(↓)
	다른 주체와 협력하는 혁신적 중소기업	103	20	-83%p(↓)

주) 각 년도 “혁신수준” 값은 EU 회원국 평균이 100일 때의 상대적 수준을 비율척도로 환산함, EU 회원국 평균은 16개 지표의 평균값임

자료) European Union,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7」, 2017.6

● 한국은 16개 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2010년 EU 회원국 평균(100%) 보다 혁신수준이 높음

- 특히, 상표권(277%), 민간분야 R&D 투자(242%), 디자인권(223%) 등은 EU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 혁신수준이 높음
- 반면, 제품 또는 공정 혁신을 갖춘 중소기업(96%), 마케팅 또는 조직 혁신을 갖춘 중소기업(88%) 등 5개 지표는 EU 회원국 평균보다 혁신수준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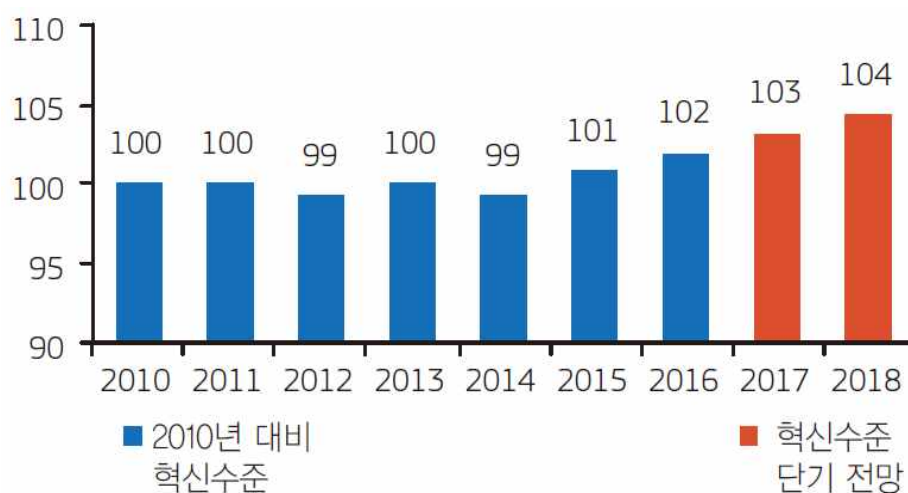
- 2010년~2016년 사이 총 16개 지표 중 10개 지표에서 한국의 혁신 수준이 개선되었음
 - 특히 PCT 특허 출원(36%p), 민간분야 R&D 투자(29%p), 공공분야 R&D 투자(12%p) 지표는 EU 평균보다 혁신 수준이 높은 상태(2010년~2016년)임은 물론, 10%p 이상 수준 향상이 이뤄짐
 - 마케팅 또는 조직 혁신을 갖춘 중소기업(48%p), 신규 박사학위자(19%p) 지표는 EU 평균보다 혁신 수준이 낮은 상태이나(2010년~2016년), 10%p 이상 혁신수준이 개선
- 반면, 6개 지표에서는 2010년~2016년 사이 한국의 혁신 수준이 낮아졌음
 - 특히, 다른 주체와 협력하는 혁신적 중소기업 지표는 2010년~2016년 사이 EU 회원국 평균보다 혁신 수준이 낮아졌음은 물론, 급격히 수준이 하락(-83%p)하였음
 - 이외에도 제품 또는 공정 혁신을 갖춘 중소기업(-7%p), 상표권(-7%p), 공공-민간 공동 논문(-4%p), 고등교육을 받은 25세~64세 인구(-3%p) 지표 등이 2010년~2016년 사이 수준 하락을 나타냄

4. EU와 한·마·일·중 혁신수준 단기 전망

◆ EU 혁신수준 전망

- 2년 후 EU 회원국 혁신수준 평균은 약 2%p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총 19개 지표 중 12개 지표는 증가, 6개 지표는 감소, 1개 지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단위 : %)



주) 단기 전망이란 차년도(2017년)과 차차년도(2018년) 혁신수준을 예측하는 것임
 자료) European Union,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7」, 2017.6

[그림 6] EU(회원국 평균) 혁신수준 단기 전망(2017년, 2018년)



한·미·일·중 혁신수준 전망

○ 한국은 EU 회원국 평균과 격차가 증가할 것이며, 2년 후 EU 회원국 평균보다 33.3%p 가량 우수한 혁신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한국과 일본은 향후 2년간 EU 회원국 평균과 혁신수준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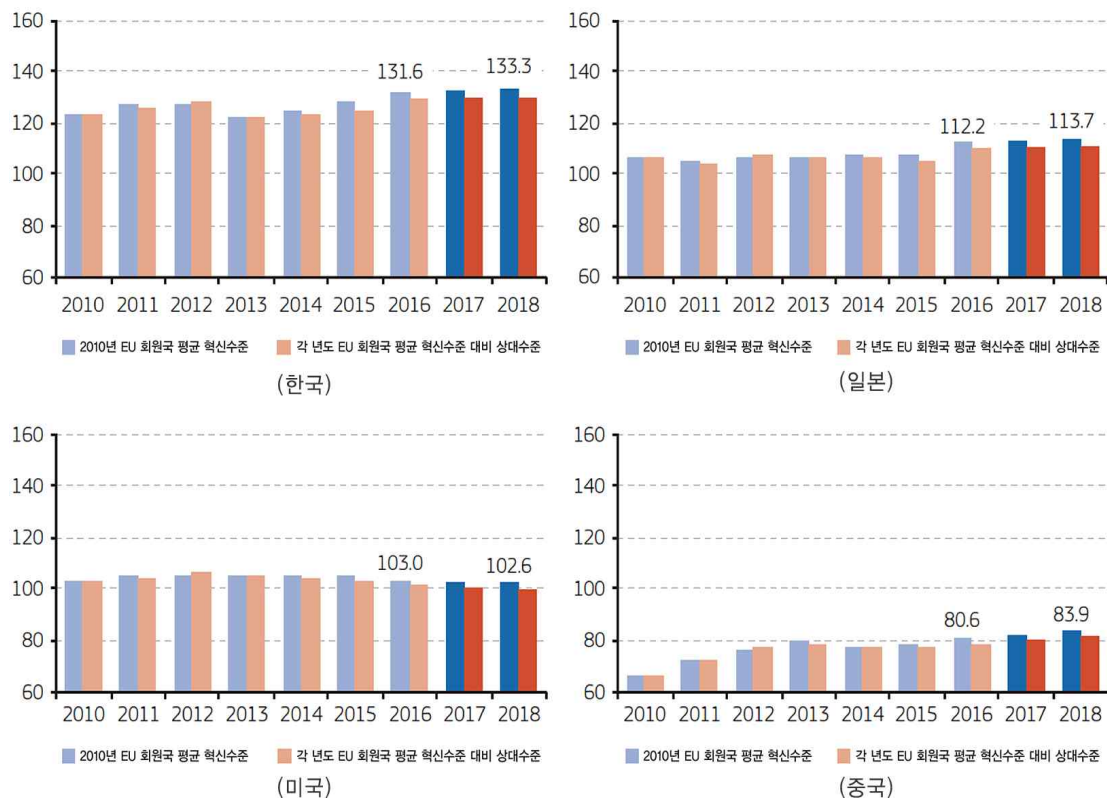
- 미국은 향후 2년간 EU 회원국 평균보다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혁신수준 격차는 점차 좁혀질 것으로 전망*

* EU 회원국 평균과 미국 혁신수준 격차 : 2017년 3.0%p, 2018년 2.6%p 미국이 우수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향후 2년간 EU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혁신수준 격차는 점차 좁혀질 것으로 전망*

* 중국 혁신수준 격차 : 2017년과 2018년 각각 EU 회원국 평균대비 19.4%p, 16.1%p 낮을 것으로 전망

(단위 : %)



주) 단기 전망이란 차년도(2017년)과 차차년도(2018년) 혁신수준을 예측하는 것임

자료) European Union,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7', 2017.6

[그림 7] 한국, 미국, 중국, 일본 혁신수준 단기 전망(2017년, 2018년)

5. 정리 및 시사점

- EIS 보고서는 유럽 국가 간 혁신수준 비교분석이 주 목적이며, 올해 분석결과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는 여전히 유럽의 혁신활동을 선도하는 국가임
 - ※ EU 회원국 간(유럽 국가들과의 비교 포함) 혁신성과 비교 분석을 위해, EU 회원국 평균값을 기준으로 각 국가 수준을 비교하고 4개 국가 그룹을 구분하고 있음
 - 2016년 단년도 분석 결과, 영국, 노르웨이 외에는 총 4개 그룹 간 국가 변동이 없으며, 각 국가 그룹 간 혁신 격차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
 - 2010년~2016년 사이 혁신성과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일부 하위권 국가(후발 혁신국, 일반 혁신국)의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었음에도 혁신 수준별 국가 그룹 분포는 큰 변화 없이 견고함
 - ※ 리투아니아(21%p), 세르비아(17%p), 노르웨이(15%p), 터키(13%p), 몰타(12%p), 영국(12%p), 네덜란드(10%p), 마케도니아(10%p)의 혁신수준은 최근 6년(2010~2016)간 5%p 이상 증가
- EIS 보고서는 본 평가와 별도로 비유럽권 국가들의 혁신수준을 비교 분석*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비유럽권 10개국 중 가장 우수한 혁신수준을 가졌으며 선도혁신국 정도의 수준을 가진 국가임
 - * 혁신활동 전반을 포괄한 온전한 평가모형은 총 2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6개 지표만을 활용한 비유럽권 분석 해상도에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결과를 해석해야 함
 - 2016년 EU 회원국 평균보다 우리나라는 29%p 가량 우수, 일본은 약 10%p 우수, 미국은 약 1%p 가량 우수한 반면, 중국은 약 22%p 가량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
 - 특히 우리나라는 2010년~2016년 사이 EU 회원국 평균보다 줄곧 혁신수준이 높음은 물론 그 격차도 증가하는 추세임
- 한국은 지표별 분석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EU 회원국 평균보다 혁신수준이 우수함
 - 특히, 상표권(277%), 민간분야 R&D 투자(242%), 디자인권(223%) 등은 EU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 혁신수준이 높음
 - 반면, 제품 또는 공정 혁신을 갖춘 중소기업(96%), 마케팅 또는 조직 혁신을 갖춘 중소기업(88%) 등 5개 지표는 EU 회원국 평균보다 혁신수준이 낮음
- 향후 2년 혁신수준을 예측한 결과, 한국은 EU 회원국 평균과 격차가 증가할 것이며 2년 후 EU 회원국 평균보다 33.3%p 가량 우수한 혁신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과거 6년간 혁신 수준 변화와 단기 전망을 종합할 때, 상승·하락이 예측되는 영역은 각각 지속적인 정책지원과 모니터링을 요구함



[통계표]

[표 3] EIS(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평가체계(부문, 항목, 지표) 변화

(변경 전) 3개 부문, 8개 항목, 25개 지표			(변경 후) 4개 부문, 10개 항목, 27개 지표		
부문	항목	지표	부문	항목	지표
투입	인적 자원	1.1.1 신규 박사 학위자	혁신 여건	인적 자원	1.1.1 신규 박사 학위자
		1.1.2 고등교육을 받은 30세-34세 인구			1.1.2 고등교육을 받은 25세-34세 인구
		1.1.3 상위 중등 교육을 이수한 20세-24세 청년 비중			1.1.3 평생 교육
	매력적인 연구 시스템	1.2.1 국제 과학 공동 논문		매력적인 연구 시스템	1.2.1 국제 과학 공동 논문
		1.2.2 상위 10% 피인용 논문			1.2.2 상위 10% 피인용 논문
		1.2.3 전체 박사과정 학생 중 비 EU 학생 비중			1.2.3 해외 박사 비중
	재정과 지원	1.3.1 공공 분야 R&D 투자		혁신친화 적 환경	1.3.1 광대역 전송망 보급
		1.3.2 벤처 캐피탈 투자 비중			1.3.2 기획형 창업
기업 활동	기업 투자	2.1.1 기업 분야 R&D 투자	투자	재정과 지원	2.1.1 공공 분야 R&D 투자
		2.1.2 비연구개발 혁신 투자			2.1.2 벤처 캐피탈 투자
	연계와 기업가 정신	2.2.1 중소기업 중 내부 혁신 기업 비중		기업 투자	2.2.1 기업 분야 R&D 투자
		2.2.2 다른 주체와 협력하는 혁신적 중소기업			2.2.2 비연구개발 혁신 투자
		2.2.3 공공-민간 공동 논문			2.2.3 기업의 ICT 역량 강화 훈련
	지식 재산	2.3.1 PCT 특허 출원		혁신적 중소기업	3.1.1 제품 또는 공정 혁신을 갖춘 중소기업
		2.3.2 GDP의 10억 유로 당 사회적 도전 분야의 PCT 출원(기후변화 완화, 보건)			3.1.2 마케팅 또는 조직 혁신을 갖춘 중소기업
		2.3.3 GDP의 10억 유로 당 유럽공동체 상표권			3.1.3 중소기업 중 내부 혁신 기업 비중
		2.3.4 GDP의 10억 유로 당 유럽공동체 디자인	연계		3.2.1 다른 주체와 협력하는 혁신적 중소기업
	혁신적 중소기업	3.2.2 공공-민간 공동 논문		3.2.2 공공-민간 공동 논문	
3.1.1 제품 또는 공정 혁신을 갖춘 중소기업		3.2.3 공공 민간 R&D 공동 투자			
성과		혁신적 중소기업	3.1.2 마케팅 또는 조직 혁신을 갖춘 중소기업	지식재산	3.3.1 PCT 특허 출원
	3.1.3 고성장 혁신 기업		3.3.2 상표권		
	3.2.1 총 고용 중 지식집약 활동(제조업과 서비스) 분야 고용 비중		3.3.3 디자인권		
	경제적 효과	3.2.2 중간 및 첨단기술 제품 수출	고용 파급효과	4.1.1 총 고용 중 지식집약 활동 분야 고용 비중	
		3.2.3 전체 서비스 수출 중 지식 집약 서비스 수출 비중			4.1.2 혁신 영역의 고성장 혁신 기업
		3.2.4 매출액 중 시장 신규·기업 신규 혁신 매출 비중		매출 파급효과	4.2.1 중간 및 첨단기술 제품 수출
		3.2.5 GDP 대비 해외 기술료와 특허 수입료 비중	4.2.2 지식 집약 서비스 수출		
				4.2.3 매출액 중 시장 신규·기업 신규 혁신 매출 비중	

주) 회색 음영(지표의 삭제), 파란색 음영(지표의 수정), 연두색 음영(지표의 신설)
 자료) European Union,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7」, 2017.6



[표 4] 유럽 국가의 EIS 종합혁신지수 추이(2010년~2016년)

국 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스위스	0.767	1	0.772	1	0.762	1	0.780	1	0.781	1	0.798	1	0.812	1
스웨덴	0.697	2	0.705	2	0.714	2	0.716	3	0.698	3	0.703	2	0.708	2
덴마크	0.688	3	0.693	3	0.713	3	0.718	2	0.708	2	0.691	3	0.675	3
핀란드	0.671	4	0.664	4	0.667	4	0.660	4	0.642	4	0.645	4	0.646	4
네덜란드	0.588	10	0.589	7	0.631	7	0.638	6	0.624	5	0.635	5	0.639	5
영국	0.560	11	0.558	12	0.556	12	0.557	12	0.570	10	0.583	10	0.618	6
독일	0.627	5	0.635	6	0.635	6	0.636	7	0.614	8	0.617	6	0.609	7
아이슬란드	0.599	6	0.605	8	0.625	8	0.623	8	0.622	6	0.614	8	0.600	8
오스트리아	0.555	12	0.557	11	0.561	11	0.567	11	0.568	11	0.566	11	0.599	9
룩셈부르크	0.592	7	0.609	5	0.641	5	0.641	5	0.615	7	0.616	7	0.599	10
벨기에	0.590	8	0.588	9	0.587	9	0.582	10	0.583	9	0.584	9	0.597	11
노르웨이	0.499	15	0.510	15	0.502	15	0.504	15	0.494	15	0.499	15	0.571	12
아일랜드	0.554	13	0.553	13	0.543	13	0.550	13	0.538	13	0.537	13	0.571	13
이스라엘	0.588	9	0.580	10	0.581	10	0.586	9	0.547	12	0.552	12	0.548	14
프랑스	0.525	14	0.527	14	0.517	14	0.522	14	0.526	14	0.522	14	0.539	15
유럽연합 평균	0.493		0.496		0.489		0.495		0.489		0.497		0.503	
슬로베니아	0.483	16	0.490	16	0.483	16	0.480	16	0.487	16	0.483	16	0.482	16
체코	0.434	17	0.439	19	0.423	19	0.421	19	0.412	19	0.421	18	0.416	17
포르투갈	0.421	19	0.415	20	0.407	20	0.411	20	0.417	18	0.419	19	0.409	18
에스토니아	0.411	20	0.439	17	0.446	17	0.451	17	0.427	17	0.450	17	0.393	19
리투아니아	0.288	27	0.286	27	0.302	27	0.304	27	0.299	28	0.323	26	0.391	20
스페인	0.395	21	0.397	21	0.393	21	0.389	21	0.361	23	0.367	23	0.386	21
몰타	0.318	25	0.311	26	0.307	26	0.359	23	0.397	20	0.403	20	0.378	22
이탈리아	0.372	22	0.372	22	0.378	22	0.370	22	0.374	21	0.383	21	0.371	23
사이프러스	0.432	18	0.448	18	0.426	18	0.437	18	0.367	22	0.368	22	0.369	24
슬로바키아	0.306	26	0.329	24	0.340	24	0.357	24	0.328	25	0.348	24	0.345	25
그리스	0.333	24	0.338	23	0.341	23	0.346	25	0.304	27	0.315	27	0.337	26
헝가리	0.350	23	0.349	25	0.325	25	0.326	26	0.329	24	0.332	25	0.332	27
세르비아	0.231	33	0.228	28	0.289	28	0.299	28	0.307	26	0.310	28	0.317	28
터키	0.229	34	0.232	32	0.231	32	0.231	32	0.292	29	0.300	30	0.294	29
라트비아	0.244	30	0.257	31	0.235	31	0.241	31	0.270	30	0.302	29	0.287	30
폴란드	0.261	29	0.263	30	0.251	30	0.254	30	0.251	31	0.257	32	0.270	31
크로아티아	0.277	28	0.276	29	0.254	29	0.265	29	0.243	32	0.267	31	0.270	32
불가리아	0.234	32	0.245	34	0.199	34	0.223	33	0.223	33	0.227	33	0.234	33
마케도니아	0.167	35	0.181	35	0.188	35	0.182	35	0.200	34	0.208	34	0.218	34
루마니아	0.236	31	0.242	33	0.217	33	0.205	34	0.168	35	0.157	35	0.167	35
우크라이나	0.163	36	0.163	36	0.157	36	0.153	36	0.159	36	0.154	36	0.142	36

자료) European Union,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7」, 2017.6



[표 5] 2016년 유럽 국가의 8대 부문별 혁신지수

국 가	인적 자원	매력적인 연구 시스템	혁신 친화적 환경	재정과 지원	기업 투자	혁신적 중소 기업	연계	지식 재산	고용 파급 효과	매출 파급 효과
스위스	0.964	0.994	0.670	0.596	0.901	0.908	0.777	0.742	0.664	0.720
스웨덴	0.895	0.778	0.945	0.677	0.705	0.608	0.584	0.668	0.748	0.559
덴마크	0.908	0.815	1.000	0.654	0.519	0.537	0.576	0.728	0.555	0.515
핀란드	0.810	0.613	0.865	0.721	0.597	0.679	0.622	0.653	0.449	0.482
네덜란드	0.689	0.800	0.715	0.666	0.333	0.611	0.786	0.552	0.686	0.601
영국	0.737	0.769	0.448	0.492	0.497	0.478	0.622	0.431	0.815	0.857
독일	0.493	0.420	0.465	0.559	0.732	0.733	0.651	0.646	0.541	0.761
아이슬란드	0.597	0.739	1.000	0.698	0.588	0.697	0.736	0.358	0.820	0.277
오스트리아	0.551	0.636	0.481	0.542	0.690	0.682	0.652	0.686	0.422	0.534
룩셈부르크	0.585	0.868	0.752	0.391	0.341	0.683	0.222	0.819	0.751	0.609
벨기에	0.483	0.766	0.594	0.480	0.621	0.776	0.805	0.431	0.408	0.500
노르웨이	0.708	0.656	0.880	0.605	0.572	0.668	0.595	0.246	0.571	0.325
아일랜드	0.623	0.598	0.487	0.319	0.474	0.817	0.346	0.308	0.910	0.829
이스라엘	0.420	0.524	0.453	0.267	1.000	0.415	0.476	0.647	1.000	0.628
프랑스	0.617	0.593	0.518	0.543	0.422	0.582	0.459	0.430	0.505	0.700
유럽연합 평균	0.481	0.451	0.497	0.473	0.475	0.478	0.479	0.493	0.538	0.664
슬로베니아	0.688	0.410	0.497	0.228	0.589	0.427	0.531	0.460	0.399	0.489
체코	0.387	0.334	0.410	0.438	0.479	0.411	0.316	0.299	0.513	0.613
포르투갈	0.444	0.454	0.668	0.462	0.370	0.559	0.191	0.373	0.373	0.294
에스토니아	0.486	0.378	0.491	0.703	0.319	0.131	0.290	0.476	0.376	0.416
리투아니아	0.493	0.140	0.604	0.549	0.419	0.443	0.545	0.260	0.358	0.217
스페인	0.497	0.382	0.541	0.343	0.320	0.199	0.284	0.397	0.398	0.541
몰타	0.252	0.354	0.480	0.130	0.283	0.377	0.094	0.796	0.841	0.309
이탈리아	0.301	0.384	0.314	0.283	0.258	0.505	0.222	0.522	0.384	0.490
사이프러스	0.442	0.469	0.229	0.264	0.204	0.483	0.220	0.546	0.322	0.410
슬로바키아	0.384	0.212	0.306	0.409	0.290	0.159	0.313	0.190	0.601	0.681
그리스	0.344	0.407	0.146	0.267	0.273	0.564	0.413	0.211	0.378	0.327
헝가리	0.258	0.224	0.406	0.251	0.371	0.080	0.303	0.230	0.681	0.632
세르비아	0.306	0.178	0.161	0.248	0.544	0.453	0.214	0.112	0.505	0.421
터키	0.182	0.110	0.482	0.395	0.594	0.468	0.316	0.106	0.052	0.308
라트비아	0.371	0.152	0.696	0.429	0.184	0.067	0.208	0.245	0.454	0.301
폴란드	0.308	0.133	0.364	0.289	0.356	0.012	0.134	0.383	0.473	0.356
크로아티아	0.308	0.162	0.209	0.288	0.449	0.344	0.255	0.195	0.333	0.161
불가리아	0.286	0.116	0.289	0.091	0.247	0.064	0.089	0.487	0.526	0.216
마케도니아	0.196	0.102	0.268	0.016	0.284	0.369	0.207	0.068	0.047	0.456
루마니아	0.198	0.121	0.390	0.102	0.050	0.000	0.148	0.122	0.199	0.401
우크라이나	0.263	0.060	-	0.108	0.195	0.088	0.023	0.116	0.419	0.214

자료) European Union,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7」, 2017.6



KISTEP 통계브리프

발간 호수 : 2017년 제12호

발간물 명 : 2017년 유럽혁신지수 분석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작성자의 개인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작성자 혹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6775 서울시 서초구 마방길 68(양재동)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분석본부 조사분석실
Tel. 02 589 5243 Fax. 02 589 2244